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에 대한 분석

한 영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문법을 잘 모르면 외국어로 글 짓기, 말하기와 듣기 같은것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로 말하기와 듣기, 글짓기와 읽고 이해하기 등을 정확히 하자면 문장구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단어결합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의 본질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이란 단어결합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주도어가 동사의 불변화형으로 이루어지고 주도어로 쓰인 동사의 결합가로부터 요구되는 성분들이 의존어로 나타나는 단어결합을 말한다.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에서 주도어로 쓰이는 동사의 불변화형은 미정형과 분사들이다. 이 미정형과 분사들은 문장의 주어와 인칭과 수 등에 따라 변화되지 않으며 형태상 일치가 없다.

주도어로 쓰이는 미정형은 현재미정형과 과거미정형으로 나타나며 분사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나타난다.

예 ①: Er treibt Sport, um seinen Körper zu kräftigen. (그는 신체단련을 위해 체육을 한다.) - 현재미정형

②: Der Junge erklärte, den Fahrer gesehen zu haben. (소년은 운전수를 보았다고 하였다.) - 과거미정형

③: Das den Wagen ziehende Pferd lahmt. (마차를 끄는 말이 다리를 절었다.) - 현재분사

④: Er musste das vor einer Woche entliehene Buch zurückgeben.

(그는 한주일전에 빌린 책을 되돌려 주어야 하였다.) - 과거분사

우의 실례들에서 주도어들은 ①에서는 현재미정형으로, ②에서는 과거미정형으로, ③에서는 현재분사로, ④에서는 과거분사로 나타났다.

동사적단어결합에서 주도어로 habend, seiend, haltend 등과 같이 의미가 거의나 없는 현재분사들이 쓰이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단어결합에서 빠지고 다만 의존어들만이 남아있을수도 있다.

예: Ein Buch vor der Nase (haltend), konnte er stundenlang im Grase liegen. (그는 책을 코앞에 들고 몇시간동안 풀밭에 누워있을수 있었다.)

다음으로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의 의존어들의 특성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에서 의존어들은 우선 주도어로 쓰인 동사의 결합가에 의하여 놓인다.

동사의 결합가에 따라 의존어들은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성분들로 나타날수 있다.

우의 실례들에서 동사의 결합가에 따르는 의존어는 각각 1개씩 나타났다.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에서 의존어들은 또한 주도어로 쓰인 동사의 결합가의 론리-의미론적인 결합능력에 의하여 놓이기도 한다.

예: Der das entliehene Buch mit großem Interesse lesende Junge ließ sich nicht stören. (빌린 책을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읽고있는 소년은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의 실례의 das entliehene Buch mit großem Interesse lesende에서 mit großem Interesse는 동사 lesen의 결합가에 의해서 결합된것이 아니라 론리-의미론적인 결합

능력에 의해서 결합된것이다.

이와 같이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 결합에서 의존어로 놓이는 단어들은 주동어로 쓰인 동사의 결합가에 의하여 확대되는 성분들이며 그외에 론리-의미론적인 결합능력에 따라 확대되는 성분들이 더 놓일수 있다.

다음으로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의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가 무엇에 의하여 표현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은 자체 내에 《주어-술어관계》를 가지고있을수 있으나 주어와 술어라는 문장성분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으로 하여 문장의 기본표식인 진술성을 표현하지 못하며 문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문법적 주어가 없어도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는 다음과 같은것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동사적단어결합의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는 우선 주문장의 주어에 의하여 표현된다.

례①: Er hat vergeblich versucht, sein Verhalten zu rechtfertigen.

(그는 자기의 행동을 변호하려고 하였으나 허사였다.)

(=Er hat vergeblich versucht, dass er sein Verhalten rechtfertigt.)

②: Überzeugt von der Richtigkeit seiner Argumente, trat der Redner auf die Bühne. (자기 론거의 정당성을 확신한 연설자는 무대에 나섰다.)

(=Weil der Redner von der Richtigkeit seiner Argumente überzeugt war, trat er auf die Bühne.)

우의 실례들에서 ①의 동사적단어결합 sein Verhalten zu rechtfertigen의 행동의 임자, 주체는 상위문장의 주어 Er에 의하여, ②의 동사적단어결합 überzeugt von

der Richtigkeit seiner Argumente의 행동의 주체는 상위문장의 주어 der Redner에 의하여 표현되고있다.

동사적단어결합의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는 또한 주문장의 보어에 의하여 표현된다.

례: Der Richter forderte den Angeklagten auf, den Hergang der Tat zu schildern.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진행과정을 이야기할것을 요구하였다.)

(= dass der Angeklagte ... schildert)

우의 실례에서 동사적단어결합 《den Hergang der Tat zu schildern》의 론리적주어는 상위문장의 보어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동사적단어결합의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는 또한 규정어로 쓰이는 분사구에서 그에 의하여 규정받는 단어에 의해 표현된다.

례: die dem Spiel mit Interesse folgenden Zuschauer (경기를 흥미있게 보고있는 구경꾼들)

(= Die Zuschauer folgen dem Spiel mit Interesse.)

우의 실례의 동사적단어결합 dem Spiel mit Interesse folgenden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이 단어결합에 의하여 규정받는 단어인 Zuschauer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다음으로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의 문장론적기능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들은 문장의 구성요소로서 문장으로 조직될 때 문장의 필수적인 또는 비필수적인 문장성분으로 될수 있다.

동사적단어결합이 문장의 구성요소로서 주어나 보어로 쓰일 때에는 필수적인 문장성분으로, 상황어나 규정어로 쓰일 때에는 비필수적인 문장성분으로 된다.

례①: Den Raum auszuschmücken ist

nicht notwendig. (방을 장식할 필요는 없다.) – 주어로 쓰임

②: Der Junge versprach, den Auftrag sofort auszuführen.

(소년은 그 임무를 즉시 수행할것을 약속하였다.) – 보어로 쓰임

③: Die Mutter geht ins Lebensmittelgeschäft, um Eier zu kaufen. (어머니는 닭알을 사기 위하여 식료품상점으로 간다.) – 상황어로 쓰임

④: Sein Wunsch, Physik zu studieren, wurde erfüllt. (물리학을 공부하려는 그의 소원이 성취되었다.) – 규정어로 쓰임

동사적단어결합이 문장의 구성요소로서 상황어로 쓰일 때에는 um이나 ohne, anstatt(statt) 등과 같은 단어들이 단어결합의 맨앞에 놓일수 있다.

례 ①: Er geht in die Stadt, um das notwendige Material zu kaufen. (그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시내로 간다.)

②: Der Zug fährt durch, ohne auch nur zu halten. (기차는 한번도 멈춰서지 않고 그냥 통과해간다.)

③: Anstatt seine Aufgaben zu erledigen, verbrachte er seine Zeit auf dem Sportplatz. (그는 과제를 수행할 대신에 그 시간을 운동장에서 보냈다.)

다음으로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에서 의존어들의 자리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동사적단어결합에서 의존어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될 때에는 부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의 어순과 공통점이 많다.

그것은 우선 의존어가 여러개 놓일 때에는 주도어로 쓰인 동사의 문장론적결합 능력에 따라 요구되는 성분이 바로 동사의 불변화형(미정형이나 분사)앞에 놓인다는

것이다.

례: in eng an die Lesestücke anknüpfenden

의존어 주도어

Übungen (독서자료와 밀접히 련관된 연습들에서)

그것은 또한 의존어가 여러개 놓일 때에는 언어행위의 목적에 따라 전달가치에 있어서 중요한것이 바로 주도어의 가까이에 놓인다는것이다.

례: ein von der Didaktik noch relativ

의존어

wenig erforshtes Gebiet

주도어

(교수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연구된 분야)

동사적단어결합에서 의존어들은 주도어로 쓰인 동사의 불변화형뒤에 놓일수도 있다. 즉 부문장과 비교하면 문장성분들이 틀밖으로 나가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동사의 불변화형이 분사로서 명사앞에 놓여 규정어로 쓰일 때에는 의존어들이 분사의 뒤에 놓일수 없다.

례①: der Roman, gelesen von vielen Lesern

주도어 의존어

(많은 독자들이 읽은 장편소설)

②: der Rat, morgen aufzubrechen in die

주도어 의존어

Hauptstadt

(래일 수도로 떠나갈데 대한 충고)

③: × der lesende das Buch Schüler

주도어 의존어

우의 실례들에서 ①과 ②에서와 같이 동사적단어결합들이 그것들이 규정해주는 단어들의 뒤에 놓일 때에는 그 단어결합의 의존어들이 부문장에서와 같이 틀밖으로 나갈수 있지만 ③에서와 같이 단어결합이 그것이 규정해주는 단어의 앞에 놓일 때에는 주도어의 뒤에 놓일수 없다.

동사적단어결합에서 의존어로 형용사가 쓰이면서 양태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도어의 바로 앞에 놓여야 하며 이러한 어순을 지키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단어결합으로 된다.

례①: in Übungen, eng anknüpfend an

의존어 주도어

die Lesestücke (독서자료와 밀접히
관련된 연습들에서)

②: × in Übungen, an die Lesestücke
anknüpfend eng

주도어 의존어

다음으로 도이칠란드어 동사적단어결합이 표현하는 의미와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와의 차이점을 밝히려고 한다.

동사적단어결합이 일정한 언어적정황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장과 공통점이 있지만 문장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우선 문장은 절대적시칭의미와 함께 문장에 따라 상대적시칭의미를 표현할수 있지만 동사적단어결합은 절대적시칭의미를 표현할수 없다는것이다.

동사적단어결합이 표현하는 상대적시칭은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사건과 동사적단어결합이 표현하는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가, 앞서 진행되었는가 또는 후에 진행되는가 하는데 따라 동시성, 선차성, 후차성으로 나눈다.

동사적단어결합이 표현하는 동시성은 주도어로 쓰이는 동사의 불변화형이 현재미정형이나 현재분사로 표현될 때이다.

례: Ein lustig pfeifender Junge ging die Straße entlang. (흥이 나서 휘파람을 불어대는 한 소년이 거리를 따라갔다.) - 현재분사

Fünfzehn Jahre später war sie eine befähigte Diplomatin geworden, die von ihrem Heimatland den Auftrag erhielt, in Afrika tätig zu sein. (15년이 지나서 그 녀성은 조국으로부터 아프리카에서 활동할데 대한 임무를 받는 능력있는 외교일군이 되었다.) - 현재

미정형

동사적단어결합이 표현하는 선차성은 주도어로 쓰이는 동사의 불변화형이 과거미정형이나 과거분사로 표현될 때이다.

례: Sie begrüßte ihn freundlich. Sie schien den Streit vergessen zu haben.

(그 녀자는 그에게 친절하게 인사하였다. 마치나 닮았던것을 잊은듯 하였다.) - 과거미정형

Dadurch in Panik geraten, führen die Imperialisten einen verzweifelten Todeskampf, um ihre frühere Position zurückzuerobern und ihr Dasein zu verlängern. (이로 인하여 공포에 사로잡힌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옛 지위를 되찾고 연명해보려고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있다.) - 과거분사

동사적단어결합이 표현하는 후차성은 주도어로 쓰이는 동사의 불변화형이 현재미정형에 놓이고 후차성을 나타내는 시간상황어가 함께 쓰일 때이다.

례: Der Richter forderte den Zeugen auf, morgen an Lokaltermin teilzunehmen.

시간상황어

현재미정형

men. (판사는 래일 재판소의 현지심리에 참가할것을 증인에게 요구하였다.)

그 차이는 또한 동사적단어결합에 동사의 문법적범주인 법범주의 주관적양태성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 양태어와 같은 어휘적수단들에 의하여 양태적의미가 표현될수 있다.

례: Er ging ins Kaufhaus, um sich vermutlich einen Hut zu kaufen.

(그는 아마 모자를 사야했기에 상점으로 갔다.)

다음으로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이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일 때의 문장부

호법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도이칠란드어의 동사적단어결합에서는 의존어들이 보통 한개이상 놓이게 된다. 이 의존어들이 단어결합의 구성요소로 되는가 아니면 문장의 구성요소로 되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구분해주지 않으면 동사적단어결합이 있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할수 없게 된다.

례: Peter versprach der Mutter zu schreiben. (피터는 어머니에게 편지 쓸것을 약속했다.)

우의 실례문장에 반점이 없으므로 단어 der Mutter가 문장의 구성요소로 되는지 아니면 zu schreiben과 함께 동사적단어결합을 이루는지 하는것을 구별할수가 없다.

이로부터 동사적단어결합에서는 주도어와 결합하는 의존어들을 반점으로 문장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명백히 구별해주어야 한다.

례: Wir beeilten uns, noch vor dem Gewitter zu Hause zu sein. (우리는 소나기가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렀다.)

그러나 레외적인 경우들도 적지 않다.

그것은 우선 동사적단어결합의 주도어가 미정형으로 이루어져있으면서 이 단어결합이 문장의 앞자리에 놓여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동사적단어결합을 반점으로 문장의 다른 구성성분과 분리시켜주지 않는다.

례: Den Rasen zu betreten ist verboten. (잔디를 밟지 마시오.)

그것은 또한 동사적단어결합에서 주도어가 미정형으로 되어있으면서 zu없이 의존어와 결합되는 경우이다. 이때에도 동사적단어결합의 의존어들을 반점으로 문장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구별시켜주지 않는다.

례: Die Schüler halfen den Wagen ziehen. (학생들은 차를 끄는것을 도

와주었다.)

그것은 또한 동사의 인칭변화형으로 haben, glauben, suchen 등이나 자체의 고유한 의미가 희미해지는 동사들이 문장에 쓰이는 경우이다. 이때에도 반점으로 의존어들을 구별시켜주지 않는다.

례: Er glaubt dies alles genau zu wissen. (그는 이 모든것을 정확히 알고있다고 믿고있다.)

동사적단어결합을 반점으로 구별해주지 않는 현상은 이 단어결합이 문장에서 술어의 구성성분으로 되는 동사의 불변화형들인 미정형이나 과거분사뒤에가 아니라 그것의 앞에 놓이는 경우에도 찾아볼수 있다.

례: Das wollten wir euch zu erklären versuchen. (이것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설명해주려고 하였다.)

Sie hatten die Hochzeit im kleinsten Kreise zu feiern beschlossen. (그들은 결혼식을 몇몇 안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로 작정하였다.)

문장에서 동사의 인칭변화형의 의미가 완전동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시칭조동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도 반점으로 동사적단어결합을 구별시켜주지 않을수 있다.

례: Der Patient scheint heute schlechte Laune zu haben. (오늘 환자의 기분상태가 나쁜것 같다.)

주도어가 현재분사인 동사적단어결합이 문장의 앞자리에 놓이는 경우에도 반점으로 문장의 다른 구성재료들과 구별시켜주지 않을수 있다.

례: Fröhlich singend(,) gingen die Kinder durch die Straße. (아이들은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를 지나갔다.)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학생들이 외국어를 실지로 써먹을수 있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